

서울의 봄 새해인사

정성껏 바느질한 설빔을 입고 때깔 고운 차림으로 나선 세배 길은
언제부턴가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었다. 전통도 생활에서
멀어지면 희미해지는 법. 새해를 맞이하는 날만큼이라도 한복을 꺼내
입기를 제안하며 정초 한복 풍경을 담았다.

기획 조유미 기자 사진 김황직(studio 11) 한복 김영진(차이) 비주얼 스타일링 이정화(시에스타) 헤어 아베다 라이프스타일 살롱 포레스타
메이크업 바비 브라운 프로 뷰티 팀 어시스트 김혜진(프리랜서), 석현지(FD) 캘리그래피 양영희



“매일매일 **한복** 입고 싶어요”

예원학교 무용과 1학년 7명의 소녀들

예원학교 한국 무용과에는 일 년에 두어 번 열리는 무용 공연을 위해 맞춰 입은 한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다. 해마다 2학년, 3학년 선배들의 공연을 보고 나면 신입생들이 한동안 ‘한복 타령’을 해 선생님들은 곤란을 겪곤 한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 한복 입어요?” “한복 입고 연습하면 안 되나요?” 종알종알 조르는 아이들 등쌀에 선생님은 “연습 열심히 하는 아이들만 한복 입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열네 살 꽃 같은 아이들은 소원하던 대로 머리 딸고 색색의 무지기 치마, 앙증맞은 털배자를 입고 카메라 앞에 일렬로 섰다.



연분홍 발그레한 뺨을 수줍게 드러낸 예원학교 1학년 무용과 학생들(왼쪽부터 최예진, 박소민, 허미소, 정예슬, 남지원, 이주경, 오지은). 예쁘게 ‘치즈’ 하고 웃어 달랬더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조심스레 양손도 앞으로 모은다.

“신여성들처럼 실험적인 **한복 스타일링**에 도전해 보세요”

연극 '휘가로의 결혼' 여배우들

깜장 스커트 아래 성큼 나온 버선발과 흰색 저고리, 전통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변화의 시대를 반영한 모습. 개화기 때에 신식 교육을 받고 서양식 양장을 하던 신여성들은 한복도 달리 입었다. 연극 '휘가로의 결혼'의 여주인공 이지하씨는 자신의 한복 취향은 신여성의 변칙 스타일링이라며 시원하게 웃어 보인다. “생활이 바빠진 한국 여자들에게 한복은 일상복으로 차려입기는 어려운 옷이에요. 하지만 격식 차려야 하는 자리나 신경 쓰고 나가야 할 모임에서만큼은 오히려 쉽게 입을 수 있는 우리 옷이죠. 잔잔한 꽃무늬 면 소재를 사용한 저고리는 파티웨어로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가족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요즘, 설날만큼은 **한복** 입고 **추억** 만들어보세요”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고문, 강경희 사무총장, 홍보대사 진양혜

할머니, 엄마, 딸 역할로 사는 세 사람이 모이니 탄생과 결혼 의식, 새해와 명절날
한복 입던 날에 대한 회상이 끊이질 않는다. 서슬 퍼런 예절 교육 덕에 한복
허리춤을 끈으로 동여매고 물동이 이고 곧게 걸었던 할머니 사진, 화롯불로 떡
구워 먹다 버선 끝에 구멍 내 혼쭐난 어린 시절 어머니 이야기. 가림 막 사이에 두고
속적삼 앞여밈 껴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이야기가 오간다.





탈배자, 두루마기를 덧입고 '서로 곱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박영숙 고문과 강경희 사무총장,
그리고 오랜만에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더니 '내 스스로
귀한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진양혜씨.



한복 잔치 열던 **그날**의 풍경

신년 우리 문화에 관한 기획을 고민하면서 시작된 한복 화보는 직접 스타일링에 참여한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음력설에는 가족들과 모인다면 신정엔 지인들과 한복 파티 하는 것도 괜찮지”라고 힌트를 준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일상생활에서 입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한 날 드레스 대신, 모임 있는 날 명품 정장 대신 한복을 입는 사람은 왜 없는 걸까?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일본 젊은이들이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다”는 스타일리스트 이정화씨의 의견에 탄력을 받았다. 아름다운 우리 옷이라는 자부심은 변함없지만 어느 순간 불편하고 입기 힘든 옷이라는 생각에 요즘은 명절에도 한복 입는 사람이 드물어졌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복 문화를 즐기고 있는, 때로는 즐기고 싶지만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한국 여자들과 함께해 보자고 뜻을 모은 뒤 섭외를 시작했다. 취지를 밝히자 모두들 단번에 수락 의사를 전해 왔다. 신년에 여든이 되신 한국여성재단 초대 이사장 박영숙 고문은 설이 되면 서른 명이 죽히 넘는 식구들이 모여 설을 쇠는 시집살이의 추억을 꺼내주셨다. 음식 하느라 정작 본인은 한복을 모셔둔 채 입을 일이 드물었는데, 이참에 재밌는 추억 하나 만들어보라며 웃으신다. 강경희 사무총장은 옷 지어 입던 시절, 평생 깨끗하게 쪽을 찢 머리에 얹은 옥색 한복을 입었던 할머니를 떠올리며 매년 마음가짐을 새로 한다며 지면을 장식해 주었다. 편집 마감 3일 전 한복 화보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무려 40여 명. 기말고사를 막 끝낸 예원학교 무용과 학생들, 연극 ‘피가로의 결혼’ 주인공 선배 따라 함께 온 20대 꽃피 신인 배우들, 바쁜 지방 일정 중에도 시간 맞춰 나타나주신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과 55사이즈로 날렵한 자태 뽐내주신 박영숙 고문, 피곤할 법도 한데 밤 12시에 꽃단장하고 스마일 포즈로 5분 만에 에디터가 “수고하셨습니다”(촬영이 끝났음을 시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외준 포즈의 달인 진양혜씨. 기획부터 스타일링, 멋진 세트 준비까지 전천후로 활약한 비주얼 디렉터 이정화씨, 무엇보다 이 모든 촬영이 가능하도록 50여벌의 의상을 제작한 디자이너 김영진. 그녀는 한국적 정체성을 살리고 미적 가치를 부각시킨 ‘스타일리시한 우리 옷’으로 한복의 범위를 넓혀 온 젊은 한복 디자이너다. 마지막으로 1박 2일 동안 함께한 일심동체 스태프들. 그날의 스토리를, 푸짐한 사진으로 소개한다.



1. 물 고운 핑크 자주 끝동, 연두 고름 길게 늘인 노란 치마 입히고 꾸며주니 신이 난 예원학교 학생들. 2, 5. 촬영에 앞서 세트 스타일링과 한복 컬러를 맞춰보는 에디터와 이정화씨. 3. 한복마다 모델마다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일명 ‘깃난이 버전, 삼월이 버전을 선보였던 바비 브라운 뷰티 프로 팀의 정윤미 팀장. 4, 9. 개화기 여자의 두 가지 버전으로 한 팀은 도도하게, 한 팀은 코믹하게 설정한 연극 ‘피가로의 결혼’ 팀의 드라마틱한 화보들.



6. 여든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고문과 두루마기를 멋스럽게
 소화했던 강경희 사무총장.
 7. 앙 갈래머리, 딸아 올린 머리, 돌림
 머리로 변형한 땡기 머리 등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날 진행됐던
 한복 패션쇼 스타일링을 담당했던
 아베다 라이프스타일 살롱 포레스타의
 5명의 헤어 디자이너들 8. 헤어와
 메이크업을 마치고 속적삼과 저고리,
 무지기, 버선 신고 족두리 얹느라 10여
 명의 스태프들이 소녀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동안 지루해진 포토그래퍼를 위해
 고운 출사위로 테스트 컷 촬영에 임해
 주었던 허미소 학생의 모습.



6



7



8



10



11

10_“예쁘게 해주세요.” 불연지 바르고 머리만 땡았을 뿐인데 모두들 ‘참
 곱다며 환호성. 11_에디터에게 ‘한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들로 엄선하겠다’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준 예원학교 박은행 선생님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디자이너 김영진씨. 12_톱스타를 봐도 함께 사진 찍지는 말
 한마디 안하던 도도한 스태프들마저 무너뜨린 예원학교 7명의 소녀들은 촬영
 내내 메인 카메라 말고도 다양한 휴대폰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12



9

여성 중앙

JANUARY 2011

김지훈 아내 이종은씨, 이혼 후
받고 무속인으로 살고 있다

실의 환희와 준희
뜻 이어
배달 봉사하던 날

빛속 '시크릿 가든' 탐구생활
하지원·윤상현 관찰기

첫 여성 CEO 이부진
경영 시대 비하인드

INTERVIEW

동건·이순재
특면 작가 박민규

김성민 마약 리스트 &
해진 우울증 병역면제 논란

COOP

배용준
하와이 와이너리
구입한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기쁘기
 이쁘다
 이 책을
 강병·이성



86

가치의 재발견
설빔 입고 새해 인사

94

행복한 나의 서재
광고쟁이 박웅현의 생각이 모인 공간

102

그대에게 길을 묻다
하버드 로스쿨 최초 동양인 여성 종신 교수
석지영이 통섭의 시대를 사는 법

108

우리 시대 지성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길 위의 작가' 김주영, 상상력이 우리의 미래다

114

예술과 문화로 세계 일주
몽블랑 주변의 작은 마을들

118

뷰티풀 마인드
실버 바리스타로 두 번째 인생, "땡큐, 스타벅스"

124

건강하게, 아름답게
복부 비만·피부 노화·통증을 치료하는 발효식의 힘

128

여성중앙+한국해비타트 나눔 바자 후기
오늘 우리는 '나눔'을 만나고 왔습니다

130

초대합니다
여성중앙 인문학 아카데미에 독자 70분을 모십니다